

# 골프백 4개 실어도 거뜰... 자연흡기 엔진 장점 완벽구현



## 혼다 '파일럿'

최고출력 284마력·토크 36.2kg.m  
휠베이스 2820mm... 실용성 뛰어난  
스크린 디스플레이 크기는 아쉬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넓은 실내공간과 뛰어난 활용성을 앞세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40세대는 차량 구매시 세단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SUV가 최고 인기 차종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덩치가 크고 실내공간이 넓은 SUV보다 실용적이고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춘 SUV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SUV 파일럿의 2021년형 부분변경 모델에 실용성과 정숙성, 첨단 기술을 녹였다. 지난 10일 2021년형 파일럿의 시승을 진행하며 차량의 매력을 분석했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충북 충주에 있는 행덕산까지 왕복 250km 구



혼다 2021년형 파일럿.

간에서 진행했다. 고속도로와 국도, 시골 소로를 주행했다.

혼다 파일럿은 첫 인상부터 대형 SUV의 웅장함을 갖추고 있다. 국내 판매 중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5005mm의 전장과 1995mm의 전폭 그리고 1795mm의 전고를 갖추고 있다. 거대한 체적에 어울리는 공간을 위해 2820mm의 휠베이스를 확보해 뛰어난 실용성을 자랑한다.

이처럼 큰 차체를 갖추고 있지만 주행시 운전자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확 트인 시야와 일반 승용차 두배에 가까운 넓은 사이드미러는 안정감을 줬다. 또 거대한 체적에 편리한 탑승을 위한

러닝 보드를 장착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는 대형 SUV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했다. 이 차의 좌석은 2+2+3 구조다. 1열은 물론 2열과 3열까지 성인이 탑승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했다.

또 3열 시트를 접지 않아도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3열을 접을 경우 1325L 공간 확보가 가능해 캠핑 장비는 물론 골프백 4개를 적재하는데 부담이 없다.

커다란 덩치와 달리 주행 성능은 민



혼다 2021년형 파일럿 실내.

첩하고 부드러웠다. 파일럿 V63.5리터 직접분사식 i-VTEC 엔진은 최고출력 284마력, 최대 토크 36.2kg.m를 발휘한다. 고속구간에서 가속시 차분하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자연흡기 엔진의 매력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또 가솔린 SUV인 만큼 소음에 대한 걱정은 물론 방지턱이나 불규칙한 노면에서의 진동 대응도 뛰어났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기장비부품의 구성이다. 차량의 크기에 비해 스크린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 시의성이 떨어진다. 또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첨단 기능과 화려함보단 클래식한 실내 공간을 제공해 호불호가 나뉠 것으로 보

인다.

가솔린 SUV지만 연비는 기대 이상을 기록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을 주행한 경과 11.8km/L를 기록. 복합 공인 연비(8.4km/L)를 훌쩍 뛰어넘었다.

여유로운 실내공간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 뛰어난 연비 등을 갖추고 있는 혼다 파일럿은 '패밀리 SUV'로 안성맞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21년형 혼다 파일럿은 '엘리트'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며 컬러는 화이트, 메탈, 블랙 총 3가지이다. 가격은 이전과 동일한 595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모비스, 세계최초 '클러스터리스 HUD' 개발

자율주행·전동화 디스플레이 최적화  
美 등 특허등록... 미래 신기술 선점

각종 자동차 운행정보를 표시해주는 계기판(클러스터)이 통합화·단순화되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변화하고 있는 운전환경의 대표적 사례다.

현대모비스가 클러스터와 HUD(헤드 업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통합한 '클러스터리스 HU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며 차량 내부 공간 활용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전동화에 최적화된 신개념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선보인 것이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클러스터리스 HUD는 클러스터에 표시하는 각종 주행정보를 운전자 정면의 HUD와 AVNT(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텔레커뮤니케이션)로 분산시켜 운전자들



현대모비스가 클러스터와 HUD(헤드 업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합친 '클러스터리스 HU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의 주의 분산을 최소화한 차세대 운전석 기술이다.

클러스터리스 HUD는 속도와 RPM 등 상시 필수 주행정보를 운전자 눈높이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길 안내 등 HUD 본연의 주행보조 기능까지 더해 안전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디자인 차별화를 이뤄내고 주행정보 표시 시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보조적인 주행 정보는 AVNT에 표시된다.

클러스터리스 HUD는 상단의 세 구

역과 하단의 한 구역 총 4개의 표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에는 속도, RPM, ADAS 관련 정보, 길안내 정보 등을 보여준다. 하단에서는 변속 모드, 냉각수 온도, 주행 가능거리 등 차량 기본 정보를 볼 수 있다. 방향 지시등, 시스템 정보 경고등도 표시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클러스터리스 HUD는 15인치로 기존 제품 대비 정보 표시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대시보드 쪽에 탑재한 광학유리를 통해 HUD 기

능을 구현하는 컴바이너 미러의 신규 제작 공법과 광학 증착 사양을 개발해 양산성을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차량에 고정하는 프레임은 운전자 쪽으로 경사지게 설계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클러스터리스 HUD를 탑재하면 내부 공간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실내공간이 넓어지는 등 내부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량 감소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클러스터리스 HUD를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콤팩트 신기술을 선점함과 동시에 국내의 완성차 브랜드에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글로벌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 LGU+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정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LG유플러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거래소,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태양광·풍력 등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산 계량기 및 인프라를 보급·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해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량기'와 발전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인프라'가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량기가 외산 제품이라는 점과 발전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한적인 탓에 중소 발전사업자는 커다란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유플러스를 비롯한 3사는 국내 기술로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원거리 전송장치(RTU)를 개발하고, LTE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전 데이터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통신 모델과 전력거래소 간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코어드 테크놀로지는 발전사업자의 신규 전력시장 진입에 필요한 통신 모델을 개발하고, 전력거래소는 국산 계량기의 보급 및 확산에 필요한 각종 업무와 행정을 담당한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 SK텔레시스, 통신자회사 매각... 반도체 사업 집중

SKC인프라, 팬택C&I에 789억 매각

SKC의 자회사 SK텔레시스가 통신 사업을 매각한다.

SKC는 24일 자회사 SK텔레시스가 팬택C&I에 통신장비 사업부문과 통신망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SKC인프라서비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했다.

총 매각 금액은 789억 원이며 오는 8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KC는 2011년 이후 단말기 사업 진출로 한때 어려움에 처했던 SK텔레시스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고, 2016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이끌어냈다. SK 텔

레시스는 이번 매각을 통신사업을 매각해 지속적인 BM(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후 SK텔레시스는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SKC는 2017년 이후 과감한 사업구조 재편과 자산 효율화를 통해 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등 미래 신규 유망

사업에 진출하는 BM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SKC는 지난해 2차전지용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사 SK넥셀리스를 인수해 모빌리티 소재 사업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장착했다. SK넥셀리스는 올해 말 레이시아와 유럽 등 대규모 해외 생산기지 확장에 나서 2025년까지 세계 최대인 20만 톤 이상의 동박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